

지역 매 아 리

“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 실현”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강연

박종평 역사칼럼니스트 초청

제579회 김제 지평선아카데미는 박종평 역사칼럼니스트를 초청해 11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인간 이순신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날 강연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군신(軍神)이자 세계대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불패의 신화를 기록한 이순신의 리더십 근원인 세가지 마음에 대해 소개하며, 충무공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가 아니라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방점을 찍어 자기자신과 가족과 부하와 조국과 백성을 사랑했던 이순신의 자세는 난세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강의를 진행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종평 강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국회의원 보좌관(4급)과 아리랑TV 기획조정실 사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순신장군 연구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날 김제종합노인복지관의 풍물팀과 체조팀의 다채로운 풍물공연과 체조공연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강연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배움으로 함께 행복하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정부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가입기간은 마늘(난지형) 10.8~11.2, 인삼 10.8~11.30, 밀 10.15~11.30, 마늘(한지형)·양파 10.29~11.30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보험대상별 재해 범위는 마늘, 양파, 밀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인삼은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폭염·냉해를 보장해 준다.

김제시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의 80%(국비 5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김태환 농업정책과장은 “몇일 전에 지나간 례이 같은 태풍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시장 민선7기 공약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7대분야 84개 공약사업

박준배 김제시장은 10일 민선7기 김제시 공약사업과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16면)

박준배 김제시장은 정의와 경제도약이라는 가치를 걸고 시민과 함께 출범한 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18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827억원의 국도비 확보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신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대승정밀 등 3개 기업과의 575억원의 투자협약 체결,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과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그간 성과에 대해 성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약속한 7대분야 84개의 공약사업(104개 세부사업)을 설명하는 등 김제 발전



박준배 김제시장은 10일 민선7기 김제시 공약사업과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각오를 다짐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하며 “출범 후 지금까지의 짧은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시민 행복을 위한 도전,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날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민선7기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나의 철학인 청렴달사(淸廉達事)를 매순간 잊지않고 유시유종(有始有終)의 마음으로 정의롭게, 한결같이, 시민결에서 84개의 공약사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히며 시민들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기방기 놀이터’ 하반기 운영 시작

완주, 아동 놀 권리 보장

베이킹·토탈공예 등 활동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완주군 ‘신기방기 놀이터’가 하반기 운영에 돌입했다.

10일 완주군은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놀이터와 수수께끼 베이킹, 토탈공예 등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반기 운영에 들어갔다.

신기방기 놀이터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복지시설의 부재로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에 모여 자유롭게 놀며 성장하는 놀이공간으로 마련한 곳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베이킹, 토탈공예, 사계절 놀이터 등이 진행된다.

우선,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다는 콘셉트로 기획한 베이킹과 토탈공예 프로그램은 신기방기놀이터 운영기간 중 주 1회(월, 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은



10일 완주군은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놀이터와 수수께끼 베이킹, 토탈공예 등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반기 운영에 들어갔다.

학습과 공부의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밀가루 반죽, 바늘과 실 등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감발달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놀이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계절 놀이터는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세이브더칠드런 놀이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통해 아동이 직접 제안하고 디자인한 공간이다.

아동이 시공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아동감리단 운영, 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성인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난 9월 초 완공했다.

정재조 교육이동복지과장은 “신기방기 놀이터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돌봄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창의력,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구제역·AI 특별방역 비상근무체계 돌입

김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만전

김제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우선 10월 1일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해 의심축 신고 접수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오는 15일부터 축산관련 차량 실·내외부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전주김제완주축협 가축시장, 스페랜드주차장, 애동리 포도직판장) 3개소를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역 취약분야의 관리와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에 축산진흥과 가축방역관(수의사) 4명이 돼지 39농가 112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장 백신접종교육을 완료했으며, 10월중 관내 소·염소에 대해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에 백신 A형을 추가해 27(O+A형) 백신을 접종한다.

또한 백신 접종 1개월 후 항체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해 11월~12월에 모니터링 검사 실시해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교육, 백신 재접종 등을 실시한다.

김제시는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방역 대응태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조기검진 홍보 적극... 방문·문자·안내전화 등 활동

완주군 보건소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초기 발견과 치료를 제고 위해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조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초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가장 흔히 발생률이 높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8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대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 유방암, 간암은 만 40세 이상이 대상이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짝수·홀수년도 모두) 대상이다.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본소, 읍면별 보건사업팀의 담당자들이 미수검자 가정 직접방문, 1:1상담 및 안내전화,

문자전송, 우편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지에 한해 암 진단 시 암 의료비가 지원되며 미수검 시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완주군은 연 2회이상 전라북도 지역 암센터와 함께 관내 삼례, 봉동, 고산 시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도 참여해 암검진 안내 전단지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이 완주군보건소장은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암 조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발생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